2012-11-25 주일 오후 특강

그리스도인의 교제

김문수

1. “교제”에 대한 오해
   가. 먹고, 마시고, 놀고, 웃고, 떠들며, 친목을 쌓는 것?
      식사, 운동, 대화는 교제를 위한 수단일 뿐, 그런 친목활동 자체가 교제는 아님(롬14:17).
   나. “이 형제(자매) 하고 교제 좀 나눠주세요.”
      처음 온 사람을 떠맡아서 교회 소개를 하거나, 고민이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득, 상담을 하는 것을 교제라고 하지는 않음.
   다. “이 교회는 교제가 부족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는 그런 교제가 필요해요”
      1) 수다 떨기, 가정의 사생활 폭로, 남편과 아내, 자식들에 대한 자랑 혹은 험담, 다른 성도들에 대한 뒷이야기 등은 교제가 아니다.
      2)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
      3)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나니 (딤전5:13)

2. 그리스도인의 교제란 무엇인가?
   가. 히10:24-25 함께 모여서 서로의 필요를 살펴보고,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는 것
   나. 히12:15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거나 쓴 뿌리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다. 행2:41-47 함께 모여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며, 기도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라. 고후8:4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마. 빌1:5 복음 안에서 교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바. 요일1:3,7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 가운데 걷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간증을 함께 나누는 것

3. 왜 그리스도인에게 교제가 필요한가?
   가. 마18:20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주께서 함께 하신다.
   나. 요17:21-22 주님의기도. 주께서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다. 히3:13 죄의 속임수를 통해 마음이 강퍅하게 되지 않도록 날마다 권면해야 한다.
   라. 히10:24-25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함께 모여서 서로 세워주고 권면해야 한다.
   마. 딤후2:22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4.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
   가. 성경적 예화
      1) 전4:9-12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수고할 때 좋은 보상을 받음.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줄 수 있음.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음
      2) 잠27:17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처럼 교제를 통해 서로가 연단을 받음
   나. 일반적 예화
      1) 숯불의 예화: 잘 타오르는 숯불도 헤쳐서 따로 떼어놓으면 금방 식어 불이 꺼진다. 하지만 다시 한 군데 모아놓으면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른다.
      2) 얼룩말 예화: 얼룩말은 맹수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어린 말들을 가운데로 몰아넣고, 머리를 안쪽으로 두고 원형 진을 만든다. 그러나 빈틈이 있으면 맹수가 그리로 파고든다.

다. 기러기 예화: 기러기가 어떻게 장거리를 여행할 수 있는가?
힘세고 건강한 기러기들이 앞장서고, 날개가 서로 겹치도록 편대를 이루어 비행한다. 다른 기러기들의 날개 짓에 의해 생기는 부분 진공에 의해서 뒤따라가는 기러기들은 거의 힘을 들이지 않고도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다.

5.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가. 무엇보다 공적인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힘써야 한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행2:42).

1)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포함된 예배와 함께 했지, 단독으로 인간적인 만남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2)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인터넷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 설교를 듣고 성경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3) 성경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히10:24-25).
4)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가 무교회주의나 일탈,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라고 가르치지 않지만, 이 날을 예배와 교제를 위해서 구별해둔다.

나. 성도들끼리 자주 만나는 것이 좋다.
전화나 문자 채팅도 좋지만, 직접 만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일단 얼굴을 대하고 만나면 보다 친밀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고, 서로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

다.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음식을 먹는 동안 우리는 마음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해제할 수 있다. 정치인이나 외교관들의 만남, 기업 간 중요한 거래, 양가 부모님들의 상견례 등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라. 그리스도인의 교제에는 뭔가 특이한 것이 있어야 한다.

1)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다(롬14:17).
2)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요일1:3,7).
3)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점들을 함께 나눈다(빌1:5).
4)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자기 삶의 간증을 함께 나눈다.
"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일들을 행하셨는지 보이라"(눅8:39)